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배성



우리나라에서 나주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나주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나주배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와 비교해서 당도가 높고, 살이 연하고, 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지역에서 이렇게 맛있는 배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은 배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기상여건과 유기질이 많고, 배수가 양호한 영산강 유역의 양질의 토양여건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주지역은 배의 주산지로서 부동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주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과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배 재배면적은 서울 여의도(295ha)의 58배인 1만7천ha로 이중 나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비중이 약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배 생산량은 약 43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15kg상자로 환산할 때 약 2천900만 상자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하였고, 대풍 피해 한번 없이 기상여건이

양호하였으나 작황은 작년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8% 감소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감소하여 올 연말 배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표 나주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배 재배면적 변화추이를 보면 2003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값싼 외국산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맛있는 배의 재배면적이 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지속적인 면적감소는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 평택지역, 충청도 천안, 아산지역 등의 도 시계발에 따른 폐원과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지역별로 도시확대와 지역개발에 따른 폐원이 보다 가속될 것으로 보여 재배면적도 보다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남지역의 재배면

적이 줄어든 것은 연이은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이맘 때 이례적으로 좋았던 작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배 1만t을 산지폐기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이 연이은 풍작에 따른 가격하락이 그동안 꾸준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오던 나주지역에 재배면적 축소라는 구조조정 의 바람을 불게한 요인이 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배 시장은 식물방역법상 유해병해충 검역조건에 의해 외국산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 배 시장은 외국산에 의한 큰 충격없이 대체로 안

정적인 수급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배면적의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차질에 의해 수급불균형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만성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 현상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올해 평년에 비해 작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적감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 재배면적 감소에 대해 도시 확대나 지역개발 수요증대에 따른 면적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작

황호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면적까지 줄이는 구조조정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가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면적 감소로 공급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상여건에 종속적인 일시적인 작황호조에 언제까지 공급을 의존할 수는 없다. 요즘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항상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배는 신규식재해서 수확하기 까지 최소 3~5년의 장기간이 걸리는 영년생 작물로 한번 베어 없애버린 상태에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적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나주배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는 절대적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지속적인 면적 감소는 오히려 나주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 배 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는 데는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지역의 배산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공유하고, 산업발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전략적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대표 나주배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해서 국내 생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중 FTA 검토’벼랑 끝 몰린 전남 농업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적극 추진되면서 전남 농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욱이 이날 한·중·일 정상들이 3국간 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동북아 3국의 FTA 체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실정이다.

한·중 FTA 체결 검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과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공산품은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농업분야에선 가격이나 저렴한 중국산 농산품이 아예 무관세로 한국시장에 들어오게 돼 전남 농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농업 분야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문가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중 FTA 체결시 2004년 기준 국내총생

산(GDP)이 17조9천억 원, 수출이 65억 달러, 수입이 142억 달러씩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국내 시장을 장악해 농수산물 적자는 123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국내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된다. 양국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대중국 수출보다는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 수입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할 때 농민들의 반발에도 한·중 FTA 체결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빈틈없는 대비에 나서야 한다.

신종플루 아직 방심할 때 아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추석이 낀 10월부터 대유행이 우려됐던 신종플루가 예상과 달리 추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환자 발생 빈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행스런 일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달까지 매일 40~50명씩 발생하던 환자 수가 이달 들어 20여명 수준으로 줄고 항바이러스 투약 환자도 급감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플루에 의한 지역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종플루가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부터 낙관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비록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신종플루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 영아와 64세 남성 폐암환자가 11일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

으로 완화하려면 최소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 해이다. 집단 감염환자가 급감하면서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0.07% 정도로 낮고, 대부분 완치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해도 신종플루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 신종플루가 다시 맹위를 떨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신종플루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시급하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환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고위험군의 경우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연구를 주관하는 국립국어원은 오래 전부터 국어 순화사업을 벌여왔다. 함부로 쓰이는 외래어와 일본어 잔재를 걸러 내기 위해서다. 2004년부터 펼쳐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이 대표적이다. 매주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하나씩 골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반듯한 순화어를 만들고 있다.

말을 다듬는 주인공은 일반 국민들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가 그 창구다. 누리꾼들이 외래어를 대신 쓸 수 있는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그중 몇 개를 골라 투표로 당선작을 정한다. 다듬은 말이 널리 쓰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면 최초 제안자가 ‘말뭉치(어원)’로 소개된다 하니 개인적으로도 영예가 아닐 수 없다.

결실도 탄실하다. 지금까지 200여개 이상의 외래어를 알토란 같은 우리말로 다듬었다. ‘참살이(월빙)’나 ‘누리꾼(네타즌)’, ‘맛글(리플)’, ‘다걸기(올인)’ 등은 이미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도 즐겨

쓰고 있다. 그럼 ‘힘내자’라는 의미로 쓰였던 ‘파이팅!’의 순화어는 무엇일까. 감탄사 ‘아’와 ‘자’를 합성한 ‘아자!’다. 누리사랑방(블로그), 그림말(이모티콘), 마루기(랜드마크) 등의 순화어에선 반쪽이

는 재치가 엿보인다.

하지만 교육기관이나 행정현장에서 여전히 국적 불명의 외국어와 난해

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WEE 프로젝트’나 ‘마이스터고’, ‘클러스터’, ‘MOU’ 등 등 해라기 어려운 정도다. 때마침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용어 순화에 나선 데 이어 박종영 전남지사는 모든 행정용어를 한글로 바꿔 쓰는 문화운

동을 제안했다. 문제는 다듬어 가는 과정이다. 국립국어원이 국립 계몽식 국어정책에서 벗어나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처럼 ‘행정용어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해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직접 매주 한 두 개씩 바로 잡아가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직하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



기고

전갑길



가을 기운이 감지된다 했더니만 어느새 들뜬은 온통 누렇게 변해 버린 가을이 전신을 휘감고 돈다.

건강하게 자란 벼가 곳곳한 자태로 넓은 광야를 뒤덮고 있는 광경은 광활하게 펼쳐진 노란 용단을 연상케 한다. 알뜰히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세월을 보내고 귀공자처럼 자태를 뽐내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슬픈 자연의 저항을 거쳐 오는 같은 풍요와 평화의 날을 맞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교훈을 준다.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때

농업과 기업을 함께 안고 가야하는 광산구는 그래서 남다른 각오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비록 많은 과제가 주어졌지만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적 정신으로 중무장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광주의 선도적 자치구로 환골탈태하는 무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 광주시 자치구 가운데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높고 있다고 모두 인정할 정도로 변모했다. 이런 희망을 되새기며 구민들이 땀을 뿜어 주기에 동참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 자연이 많은 광산구가 산업과 주거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한다. 들녘의 황금 물결은 농업종사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실체다. 못자리 조성을 시작으로 모내기하고 농약 살포, 물관리, 잡초 제거 등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니 결실의 날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풍년이라 하지만 가격과 판로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금세 시름이 찾아온다. 특히 재고 쌓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매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농업종사자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간다.

우리 광산구는 광주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5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광주 기업의 80%인 1천600여개가 있다. 그러나 지난 88년 광주 보통시가 직할시로 개편되면서 광산구 농촌지역도 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광주직할시에 편입됐다. 자연스럽게 광산구는 산업과 주택단지의 비중이 크면서 한편으로는 농촌 동이 타 구에 비해 많은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심으로 발전해가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금 들녘이 수심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지만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잠시나마 자연으로 마음을 돌리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만일 누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생의 세 가지 자산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책과 친구, 그리고 자연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자연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연주의자로 평가받는 존 바룩이 갈파한 내용이다. 자연애호가인 그는 자연은 인간의 병을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중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는 계절은 4월 말경의 봄과 첫서리가 내린 직후인 가을이라고 한다. 그 하 나인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켜든 현실 너머에 있는 자연을 끌어안고 오붓하고 정겨운 가을을 맞았으면 좋겠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우리의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나이 60만 넘어도 현장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한갑 남긴 어른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농사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농촌에서 과일과 친환경 채소를 가꾸고 밭을 일구며 남은 삶을 아름다운 우리 농촌에서 보내는 마인드들이 필요하다.

지금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 농촌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고 또한 농사를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듯 하다. 그러면 그분들의 젊은 자식들이 농촌을 자주 방문하게 될 터이고, 자주 보게 되면 우리의 농촌을 살게우게 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이제 우리 농촌을 먼저 한번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를 기대해본다.

▲김집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기고

오덕렬



내일모레면 제6회 ‘추억의 7080 총장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다. 나는 관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회 때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축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본다.

먼저 주제의 이미지화 문제다. 축제 이름에 주제는 함축되어 있지만 주제가 먼저 튀어나와 반겨주면 좋겠다. 환경 나비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처럼, ‘추억의 7080 총장축제’하면 머릿속에 퍼득 스쳐가는 이미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오시는 손님을 편하게 맞이하자. 차를 세우지 못하고 몇 바퀴 돌다가 돌아가는 심정을 헤아려 보자. 어떻게 할까, 관공서, 학교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자. 유료 주차장은 반액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장가지적으로 보면 관장을 짓겠다. 배풀고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작은 것에 감명 받는 때가 많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 행사에서 지혜를 배우자. 작년 에 손님 몇 분을 모시고 축제 현장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이다 싶은 분수대 쪽

‘총장축제’에 악센트를 주자

무엇일까. 주체인 동구(東區)의 장점에서 찾았으면 어떨까. 동구만이 가진 것, 동구가 앞서가는 것, 동구가 잘 할 수 있는 것, 특색 있는 것을 살려내서 이미지화하면 좋겠다.

주제를 살린 축제에 역사성을 담자. 세월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 광주에서 있었던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태생수업엔 것, 경양방죽 배운 것, 예술의 거리에 국적 불명의 반자이를 설치한 것-. 예술의 거리는 느낌이 고전적이고 차분해야 하지 않을까. 옛 맛이 우리로 가야 역사가 스며 있다 할 것이다. 묵은 지 맛, 대물린 간장 맛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축제 기간을 지역 상가의 봉사-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자. 행사 기간 동안 모든 매장이 할인 판매를 하면 어떨까. 상가의 기능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격과 품질에 친절을 더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수익 사업도 생각해 볼만하다. 캐릭터 등 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에 팔면 기념도 되고 축제를 각인도 시킬 수 있다. 멋진 원자라면 좋겠다.

<광주문인협회장>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가족 정보 없애야

우리나라 입사지원서는 지원자의 사진을 붙이게 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직원을 뽑겠다는 건지, 모델을 뽑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그냥 놔둘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풍토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인지 사회적인 노력과 약속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일부 회사의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체중과 신장, 혈액형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가족들의 학력·직장·지위·동거여부까지 써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현재 주거형태가 사골세진지 전세인지, 또는 본인 소유 집인지까지도 밝혀야 한다.

이 정도 되면 풀나는 학력, 변변한 재력, 든든한 가족이 없는 지원자들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서류가 되고야 만다. 열심히 일할 인재를 뽑는 일에 이 같은 천박한 항목은 언제쯤 없어질지 모르겠다.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